

국립문화재단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27일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필 위원장 주재로 2017년도 국제 교류 추진 계획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국제교류 성과인 '대한민국-리투아니아 수교 25주년 기념 정읍음악 초청 공연'과 '일본 나리타시 학생 정읍 홈스테이', '서주시 국제미술교류전', '서주시 체육협회 방문' 등의 추진 결과 보고와 2017년 국제 교류 계획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국제 교류 추진과 관련, 정읍 체육교류단이 서주시를 방문해 민간 생활 체육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읍 공연단 국외의 자매도시 공연을 통해 문화 교류도 지속적으로 진행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외의 신규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통해 국제 교류를 더욱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김제농기센터, 수원서 열리는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참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3일간) 수원 하나유통센터에서 열리는 제25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에 참가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며 100여개 시도 및 시군구 부스 100여개를 운영하였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값싸고 싱싱한 도농간의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축제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김제시가 생산되는 우수한 쌀과 참깨, 흰 쌀보리, 현미 등을 전시, 홍보하였다. 더불어 행사에 참가한 관람객에게 판매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는 홍보 전단지 배부 및 지평선 쌀과 잡곡 등을 홍보 하였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은 김제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많은 호기심을 보였다. 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 연합회(회장 정영삼)은 "김제시 우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유통식품과 조기문 과장은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내 고장의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며 새로운 판로를 찾는 농가에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지자체 생산성 우수사례상

행자부와 생산성본부 주관... 지역경제분야서 최초 특장차 생산기반조성 인정

김제시(시장 이근식)는 지난 27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제6회 생산성 대상에서 지역경제분야 우수사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관리, 지방재정, 지역경제, 주민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였고, 생산성과 효과성, 파급성을 큰 정격을 서면심사(1차)와 면접평가(2차)를 거쳐 선발하였다. 생산성

대상 심사단은 김제시가 전국최초로 농공단지 특장차 전문단지로 특화 조성하고 여기에 국토부 공모를 통해 자기인증지원센터를 추가 유치하여 생산 경쟁력을 높인 "특장차 원스톱 생산기반 조성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김제시는 특장차 전문단지(327천㎡)와 자기인증지원센터(6천㎡)의 완벽한 생산 인프라 조성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1,41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600여억원의 기

업투자 유치, 연간 36억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를 견인할 효자산업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이근식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전국 생산 경쟁력을 높인 "특장차 원스톱 생산기반 조성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김제시는 특장차 전문단지(327천㎡)와 자기인증지원센터(6천㎡)의 완벽한 생산 인프라 조성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1,41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600여억원의 기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가 재경대학생들의 주거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진학을 제고 위해 서울장학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이근식 시장, 나병문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장학재단 임원, 사회단체·학부모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장학숙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제시, 서울장학숙 설립 타당성 검토나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우수학생들 수도권 진학을 제고위해

김제시가 재경대학생들의 주거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진학을 제고 위해 서울장학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28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이근식 시장, 나병문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장학재단 임원, 사회단체·학부모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장학숙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기관인 전북연구원 이 그동안 연구한 서울장학숙 건립의 필요성 및 설문조사 결과, 입지분

석, 설립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만 19세 이상 450명의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0% 이상이 서울장학숙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시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분석에서는 효율성(대학교 밀집 지역), 경제성(지가가 저렴한 지역), 접근성(대중교통 양호 지역) 등을 고려한 결과 동대문구, 성북구 등 강북 지역을 건립 후보지역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설립방안으로는 신축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건물매입이 효율적이

다고 판단했고, 수용인원은 김제출신 수도권 진학을 감안할 때 55~75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했다.

이근식 시장은 "지역 우수 인재들을 위해 기성세대가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줄 때 지역의 미래는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서울장학숙 설립은 작게는 재경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크게는 김제 미래 백년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잔치 성료

퍼레이드·천년의 불꽃 성화 등 다채

부안군이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아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 천년의 비전 제시를 위한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 '600년만의 잔치'를 지난 28일 오후 5시 부안군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성대하게 열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는 '부안의 동학 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신영우 총북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윤석산 한양대 명예교수, 김철배 임실군청 학예연구사, 노용필 한국사학연구소장, 임형진 경희대 교수 등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발표했다.

신영우 총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순필 느티나무 서원 대표,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부장, 최인경 최보따리 인문 포럼 대표 등이 종합 토론을 해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민족의 지주를 표방한 민중봉기였던 만큼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아 이 송고한 조상들의 얼과 성스러운 충정을 길이 빛내고 부안 군민의 희망과 정신을 재조명했다.

식전행사로 김놀이(부안군립 농악단 어울마당)는 부안 600주년의 정신, 임경불(천년의 불꽃) 퍼레이드, 어울림한마당(군립농악단+읍면 농악단), 천년의 불꽃 성화, 오프닝 대북공연 등이 펼쳐져 큰 호

응을 받았다.

부안 600년의 정신, 임경불(천년의 불꽃) 퍼레이드는 고려시대 부령현과 보안현으로 나뉘다가 1416년 완전한 부안현 탄생을 재현하고 부안 600년의 정신을 임경불(까지지 않는 천년의 불꽃)로 표현했다.

특히 미디어 퍼포먼스는 부안의 과거·현재·미래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특별영상과 특수효과 등으로 부안 정명 600주년을 재조명하고 미래 부안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큰 박수를 받았다.

비전선포식에서는 주요 내빈과 600돌이(부안 정명 600주년이 되는 10월 30일 생일 6살 아이) 등 총 18명이 '만행행복도시', '600만 관광도시', '부래만복(扶來滿福·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 구호를 외치며 부안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하이라이트인 600군민 대합창에서는 군민과 관광객 600명이 '군민의 노래'와 '천년의 노래', '우정의 노래' 등 3곡과 인기가곡 '고향의 봄', '인기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를 다채롭게 합창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기념행사는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아 부안의 60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6만 군민이 하나 돼 새로운 미래 천년을 함께 열어가는 의미가 있다"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에너지 바우처 사업 내달 9일부터 실시

전기·가스 등 행복카드로 결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시범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관련, 내달 9일부터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된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난방 에너지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난방 에너지원인 전기와 LPG, 연탄, 도시가스과 지역난방 등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중 세대원이 노인(1951.12.31. 이전출생자), 영유아(2011.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1~6급등록 장애인) 또는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할 경우,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대상자가 직접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있고, 카드결제가 어려운 사용자의 경우 가상카드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차등 지원되며 1인 가구 8만3천원, 2인 가구 10만4천원, 3인 가구 11만6천원이 지급된다. 접수는 내달 1일까지 계속되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대리인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대리 신청해도 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오는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용 할 수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김제시, 가을 산불방지총력대응

김제시는 최근 단풍철로 등산객이 늘어나 화기 취급 부주의로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사역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원녹지과 및 평야지역 18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을 위하여 7개소 38명으로 편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주·야간 운영 할 계획이며 산간오지대, 주요등산로,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원35명을 정면 배치할 계획이며,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 등 산불진화장비를 정비하고, 기계화진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유지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5일자로 김제시 금구면 구성산 일원 297ha의 산림을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한편, 등산로 3km구간을 폐쇄하여,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입산을 엄격히 통제 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생주 Premium Ochi Wine'.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